

나는 무엇을 바라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 45:22).

: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관심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개념도 많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금욕주의자나 경건주의}자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겹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 45:22)

1. 구원의 방해 요소 '축복'

축복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챔버스는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구원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축복'이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가 선택한 본문 이사야 45장 22절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구절은 'be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챔버스는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챔버스에게는 13살 많은 형 아서가 있었습니다. 1917년 12월 5일 챔버스를 추도하기 위해 모였던 예배에서, 형 아서는 챔버스가 서른세 살 때 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챔버스는 그 때 반 크라운 백동화(20달러 가치)를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돈 한 톨 안 들고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도, 반 크라운 백동화가 그대로 남았잖아!”(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 중)

이 말을 통해 챔버스는 자신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는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은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 개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금욕주의자나 경건주의자)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 즉 ‘주만 바라보라’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걸린 뱀 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뱀 뱀을 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냥 텐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좀 더 오묘한 비법을 알려주었더라면 따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과 ‘구원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서 있을지 모릅니다.
- ❷ 구원받는 삶을 위한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묵상 질문 지금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방해물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가요?

묵상레시피 ■ 신명기 6:10-25 + 이사야 45:22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10-11절)
그들이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13, 17-18절)
그들이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16절)
그들이 잊지 말고 자자손손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25절)
내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탐내지 않습니다.
명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만 아버지의 성령만이 소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절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절로 몸에서 뿜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저의 친구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다른 것은 아니 주시더라도 성령만은 허락하소서.
성령은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_제가 원하는 것(1861-1930,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사권의 기도」 456